

#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청년 대학생 임금근로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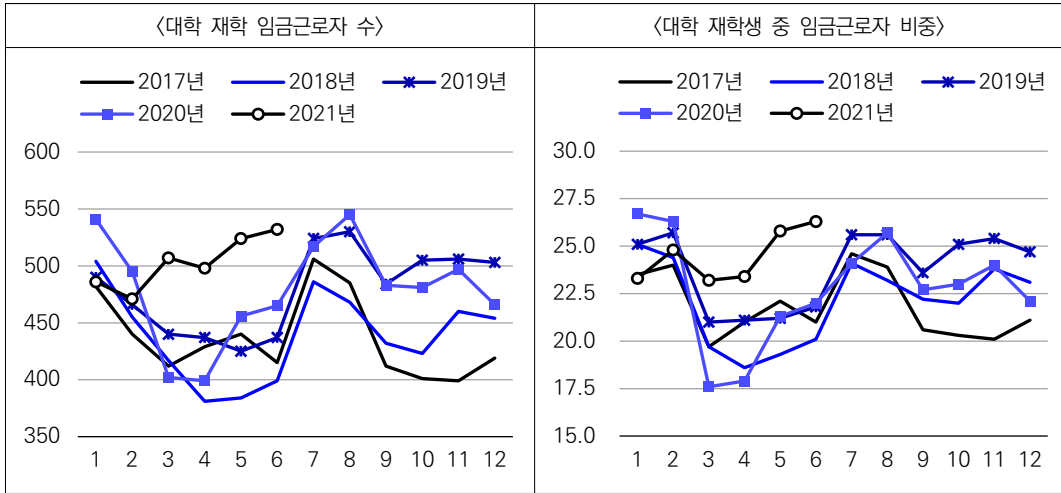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로 대학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음.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, 재학 중 근로를 하는 대학생의 추세에도 변화가 관찰됨. 이를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월별 자료를 통해 살펴봄.
  - 분석 대상은 15~29세 청년 중 전문대 이상 대학에 재학<sup>1)</sup> 중이면서 임금근로자인 자를 대상으로 함.
- [그림 1]을 보면,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임금근로자 수는 전반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1~2월에 늘고 3월 이후 감소함. 하반기의 경우는 7~8월에 늘고 9월에 감소한 후 다시 서서히 증가함.
  - 이는 1~2월과 7~8월 기간이 각각 겨울과 여름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패턴임. 상반기는 3월부터 학업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대학생 임금근로자 수가 감소한 후 그 수가 6월까지 유지되는 모습임. 다만, 2020년 3~4월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19 발생 영향도 반영된 것임.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5~6월은 재학생 임금근로자 수도 반등함.
  - 2017~2019년 하반기의 경우 재학 중 취업한 임금근로자 수가 매해 꾸준히 증가함. 재학생 수의 증가를 감안한 재학생 중 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증가하여 재학생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재학생 자체가 증가한 영향만은 아님. 2020년 하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2~3차 확산으로 2019년보다 재학생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이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함.
- 특히 2021년 상반기의 경우 월별 재학생 임금근로자의 추이가 이전 연도와 큰 차이를 보임.
  - 1~2월은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재학생 중 임금근로자 수가 적었음. 이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됨.
  - 반면, 학기가 시작된 3월에는 재학생 임금근로자 수가 이전 연도에서 관찰된 것보다 크게 증가함.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<sup>2)</sup>되고 있어 구인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

1) 졸업, 중퇴, 휴학 및 수료자는 제외함.

2) 통계청,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판매액지수(불변지수)는 전년동월대비 2021년 1월 0.0%→2월 8.2%→3월 11.1%

- 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 3~6월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임.
- 이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(온라인)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했기 때문으로 추측됨.<sup>3)</sup>

[그림 1]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금근로자 수와 대학 재학생 중 임금근로자 비중의 월별 추이 : 연도별 비교 (단위 : 천 명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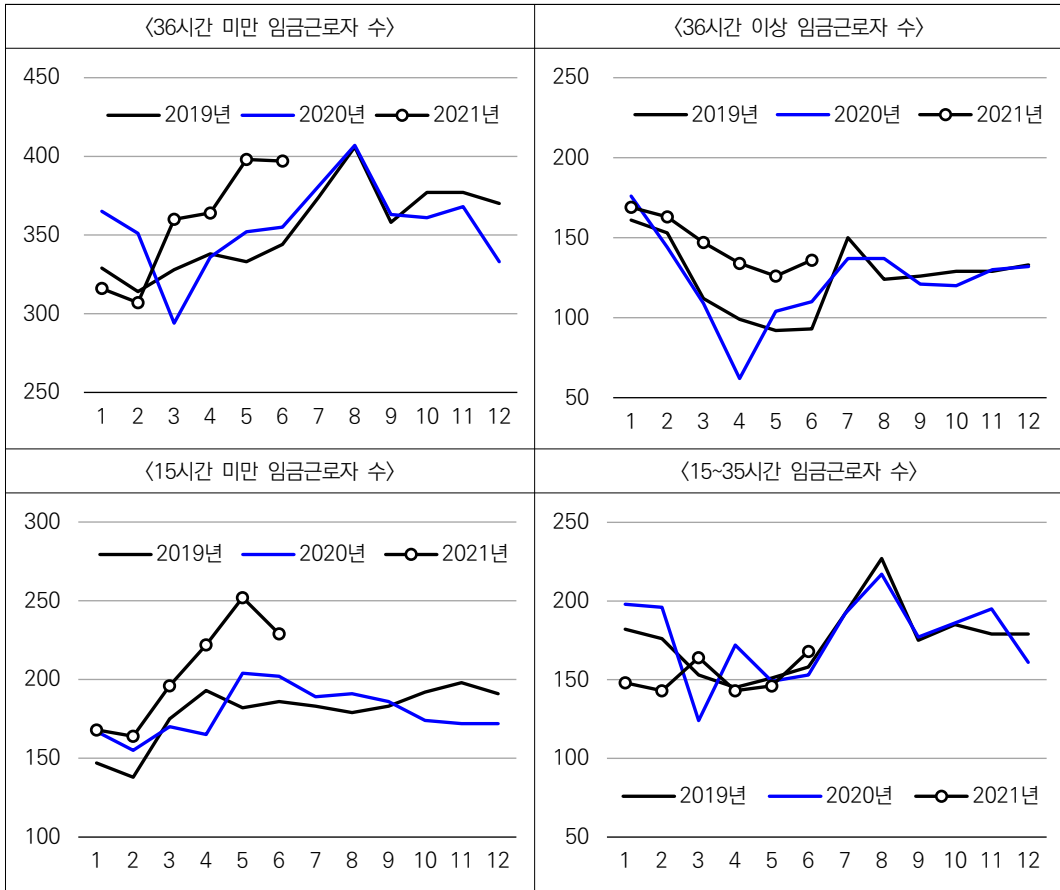
주 : 15~29세 전문대 이상 재학생을 기준으로 함.  
 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- [그림 2]를 통해 대학 재학 임금근로자를 근로시간별로 나누어 보면, 2021년 3~6월은 전일제(36시간 이상)와 시간제(36시간 미만) 모두 임금근로자 수가 이전 동기간에 비해 증가함.
  - 대학 재학생 중 전일제 임금근로자 수는 1월에서 6월로 갈수록 줄어드는 패턴임. 다만, 2021년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감소세가 더뎠다. 2월부터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임금근로자 수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함.
  - 시간제 임금근로자 수 역시 2021년 3~6월에는 2019년이나 2020년 동기간보다 근로자 수가 더 많으며 증가하는 추세임.
  - 36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를 15시간 미만과 15~35시간 취업자로 나누어 살펴보면, 2021년 3~6월 나타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주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음.<sup>4)</sup> 15~35시간 근로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.

→4월 8.7%→5월 3.1% 증가함. 한국은행, 소비자동향조사의 소비자출 전망은 2021년 1월 102→2월 104→3월 107→4월 106→5월 108→6월 113으로 1월 이후 100 이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 
 3) 예를 들면, 2021년 7월 7일자 「매일경제」는 인턴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'무휴학 인턴' 사례에 대해 보도함(<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21/07/657749/>).

[그림 2] 근로시간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금근로자 수의 월별 추이: 연도별 비교

(단위: 천 명)



주: 15~29세 전문대 이상 재학생을 기준으로 함.  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○ 종합하면 2021년 들어 초단시간 근로자 전일제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 재학생이 이전보다 늘고 있음.

- 이러한 변화는 재학생의 학업 성취와 경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. 또한 이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사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임. **KLI**

(지상훈, 동향분석실 연구원)

4)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, 건강보험,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,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사업주의 인건비 절감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.